

(解) (說)

軍 納 包 裝 概 要

— 바렛 包裝을 中心으로 —

東洋セメント工業株式會社 朴 鐘 煉

當業界는 1966년 이래 주한 미 8군 구매처를 통해 대월남군납을 실시한 바 이는 점진적으로 그 수량이 증가되었고 특히 대월남군납은 국내 시판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한 출혈을 보았지만 수출실적면이나 국내 비수요기의 재고처리에 한부분을 차지 했으므로 국내의 양산체계 문제를 고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금년도에 접어 들면서 시멘트 단일 품목의 국제입찰로 한번에 400~500만불에 해당하는 입찰이 빈번한바 이는 비단 당 업계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 외화 획득을 강조하는 정부 시책을 생각 해서라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현재 양회업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화 표시 군납은 주한 미 8군 구매처에서 발주하고 있는 국내 군납(주한미군 각부대 및 민사처와 한국군)과 주로 월남 지역으로 출하되는 국제입찰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월남 국제입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특히 이의 특수포장에 대한 개요를 중점적으로 소개코자 한다.

1. 군납실적

대부분의 업종이 그러했지만 당업계에서도 처음 군납분야를 개척할 때 허다한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던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는 한국공업 표준규격에 의한 KS 표시품 생산공장의 자격을 가졌지만 미국의 연방규격을 적용하는 구매처의 검사과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큰 문제의 하나이다. 구매처 당국자의 견해로는 국내

어느 분야보다 시멘트 제조업은 국제 수준에 손색이 없다지만 구매처가 요구하는 소정의 검사과정은 필수과목인 만큼 세심한 자체검사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1968년 5월 31일 현재의년도별 대월남 및 국내 군납실적은 다음과 같다.

表 1 年度別國內軍納實績

	수량(㎘)	金額(弗)
1964	15,429	274,795
1965	83,822	1,403,502
1966	73,321	1,364,201
1967	152,692	2,922,665
68年5月末現在	70,281	1,461,258

表 2 年度別越南軍納實績

	數量(㎘)	金額(弗)
1966	74,143	1,903,344
1967	46,652	1,016,070
68年5月末現在	62,000	1,750,750

2. 대 월남군납

대월남군납의 입찰은 주로 극동지구 구매본부나 주일본 미군 구매처에서 주한 미군 구매처로 의뢰되는 것이 통례인데 입찰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오끼나와 등지이며 주로 한국, 일본, 대만의 3자가 경쟁국으로 되어 있다. 입찰 안내서의 규격 포장조건 및 물품인도 방법에 따라 매입찰시의 응찰 낙찰 가격이 다르며 특히 포장조건은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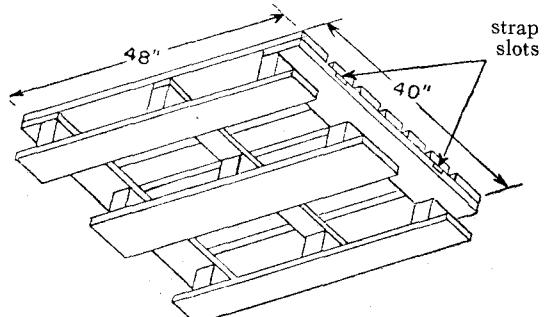
정한 형식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제품인도 조건은 지정 항구 선착(주로 부산항)도나 해일도(부산 제2부두)이었으며 품질 검사 및 출하포장에 관한 사항은 미 8 군 구매처 검사과와 구매처 부산 사무소에서 실시하였고 선적작업 및 이에 대한 부대 업무는 미 70수송대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매월 남 군납중 현재까지 당업계에서 행한 포장방법 및 구매처에서 입찰안내한 포장방법 및 조건등을 대별 하면 다음과 같다.

3. 포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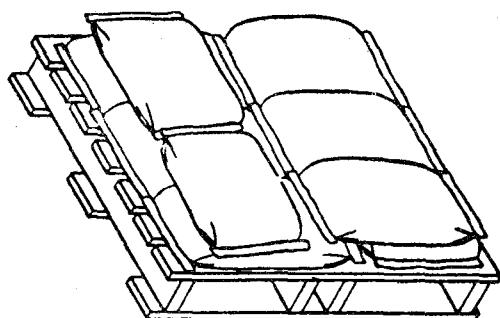
ㄱ. 목재의 파allet(좌대, 그림 1 참조) 위에 파렐크기의 합판을 깔고 시멘트(보통 50키로그램들이 5중지대) 20대를 1단에 5대씩(그림 2) 4단으로 적재한후 시멘트 20대 부피정도의 「포리에치렌」으로 이를 덮어 써운후 시멘트를 보호하기 위해 파렐크기의 「화이바보드」거나 합판을 상부에 깐후 철대로 묶는다.

그림 1 파allet(木製)



Pallet, Material Handling, Hardwood, 4 Way, 40'' × 48'', Double 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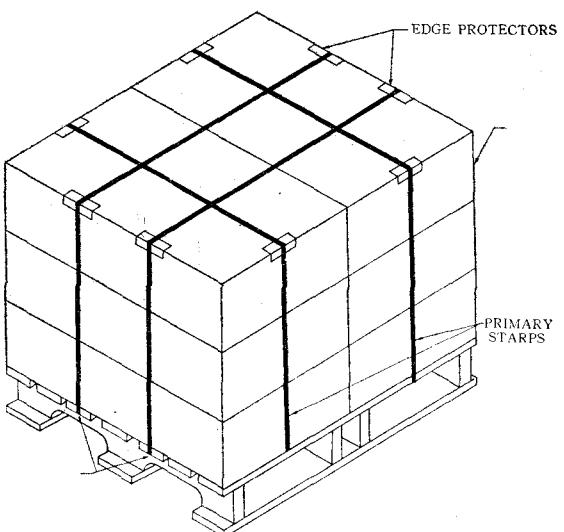
그림 2 시멘트 적재요령



ㄴ. 전시의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 대차는 없지만 파렐 위에 합판을 깐 다음, 화이바보드 상자(화이바보드 콘테이너)를 제작 상자속에 시멘트 25대를 1단에 5대씩 5단으로 적재하는 방법(표 3)

ㄷ. 파렐을 철재로 제작하여 철제파렐 위에 시멘트 40대를 적재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3 화이바 보ード·콘테이너(시멘트 25袋入)



ㄹ. 대금지불 방법에 의해 구분하면 최근 안내된 것은 미농무성의 농산물 공사인 C.C.C.의 구상조건을 소개 하였는데 이도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포장방법에 있어서는 전시의 3방법이 주로 행해지고 있으나 앞에서 말했듯이 일정한 것이 아니며 1항의 20대를 쌓는 것은 2항의 「콘테이너」방식에 비해 문제도 되지 않는데 「콘테이너」를 사용할 때 구매처 당국에서도 상당히 고심하였다. 이는 상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포장 작업과정에서 시멘트 25대를 상자 내에 적재할 경우 상자높이 (25) 보다 시멘트의 높이가 3-5인치나 더 높아 졌다는 사실이다. 시멘트 지대의 규격이 $30\frac{1}{2}'' \times 16\frac{1}{2}'' \times 3''$ 인 만큼 시멘트 지대와 상자의 규격에 차이가 있어 뚜껑을 덮기 위해 1톤이 상 무게의 크레인으로 상자내에 쌓은 시멘트 높이를 수평 상태로 다쳤으니 작업과정이 말할 수 없이 복잡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대규격을

개조하면 어떨가 하는 문제인데 원자판계 및 「페카」에서의 시멘트 포장 문제상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다음으로 아직까지는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철재파렐위에 40대를 적재하는 방법인데 이는 작업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40대를 적재후 35미리 넓이의 철대로 사방에서 끝을 때 과연 선적이나 이송작업에 비끌어져 나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 스러우며 또한 8단으로 쌓 40인치 이상의 높이가 작업하는 능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의 여러가지에 쓰여지는 자재는 모두 미연 방규격에 준해야 하며 지대는 보통 5중지(방수지 포함)이다.

목재파렐의 경우는 48''×42''정도가 보통이고 합판두께는 1/4'', 포리에치렌은 0.003'' 두께이다. 파렐용목재는 주로 나왕이나 미송 육송종류 이면 죽하고 합판 「포리에치렌」등은 국내에서 조달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한 철대는 19미리 정도로서 수입품에 의존해 왔으며 앞으로 철파렐을 사용할 경우 35~36미리의 철대를 사용해야 하니 「벤딩」기계도 수입내지 제작해야 할 문제이다.

「화이바보드」상자는 신홍제지에서 3중골판지를 제작공급 하였으나 상자식이 아닌 경우 단순히 시멘트 보호용으로는 국내공급자가 수개처로 늘어날 것 같다.

4. 앞으로의 문제

요는 군납관계의 국제입찰은 포장자체 및 규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요되는 포장 자재를 적기에 또한 합격품을 공급하는 것이 문제인데 포장자체비 및 작업비는 시판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면서 시멘트 자체의 가격은 국제가격에 준해야 한다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큰 애로이다. 국제 경쟁입찰은 동남아 시장을 상대로 일본, 대만 등지에서 국내 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또한 최근의 일본 업계는 100%조업을 하지 않는

다 하니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멘트 자체 가격을 얼마나 인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란 정확한 海外시장 정보의 입수라 하겠다. 과거 한국업계는 국제 경쟁에서 너무나 많은 패전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으로 국내 판매에만 분망했지만, 이제는 판이하게 달라질 풍요한 71년대를 내다볼 때 과연 과거와 같은 식으로 많은 국제입찰의 패배를 보아야 하나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대량생산 체제는 국내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진로를 이보다 한걸음 더 내다 볼때 체화 및 비주요 기의 재고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큰 착오를 스스로 범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일반 수출시장의 확보 문제는 고려 밖에 둔다 해도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군납의 국제 입찰이지만 앞에서 논했듯이 까다로운 조건이더라도 이를 능히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매사에 임한다면 어느 누구와의 경쟁에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최근에 전문한 바로는 「화이바보드」「콘테이너」에 의한 포장방법은 차지에서 너무나 많은 불량품이 발생하여 이를 목재 콘테이너로 변경할 것이라 하니 항상 자료수집에 분망해야 하며 외국의 상황에 게을려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 생산확장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판로문제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시멘트 가족계획 강조주간을 설치하기 전에 알뜰한 정원터를 찾아 보자고 한다면 좀 지나칠까? 참고로 금년도에 안내될 대월남 군납 국제입찰과 한국업계의 낙찰 현황을 부기 한다.

입찰일시	수량(대)	결과	비고
67. 12. 18.	560,000	유찰	
68. 2. 5.	1,240,000	낙찰	240,000 쌍용
			240,000 동양
			235,000 총복
68. 3. 22.	3,945,718	유찰	
68. 4. 19.	160,000	유찰	
68. 5. 10.	272,000	유찰	
68. 5. 16.	900,000	유찰	
68. 6. 14.	3,276,078	미정	

주 : 50kg입 전부 「파레타이징」임.